총학생회 선거 시작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바로〉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솔
르게 경선으로 치러져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전망이다. 이에 〈국민대신문〉 기

라정우/오현경/최현서 기자

참여 방법

러진다.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에 마무리된다. 투표에 참여하
참해야 한다. 부재자 및 휴학생의 경우 투표를 원할 경우 사전 신청 후 사전 투
회' 또는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솔루션"

정후보: 민송길(정치외교·14)
부후보: 임혜영(국제통상·16)

「교육제도 개선」

재수강 최대 상한선 B+에서 A0로 변경, 절대평가 취지를 반영한 상대평가2 유형 강의 확대

Q: 기업체로부터 '물학점 대학'이라는 오명 방지를 위해 요즘 대학들이 성적 상한선을 낮추는 경향이라고 하던데, 학교 측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

A: 2015학년도를 기준으로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이 기존 A0에서 B+로 변경됐다. 변경된 제도는 15학번부터 전면 적용됐기 때문에 14학번 이상의 경우 최대 A0를 받고, 그 이하는 최대 B+까지만 받을 수 있어 기본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타 대학은 여전히 재수강 시 A0가 최대학점인 경우도 많다.

평가 상한선이 A0인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들이 상한선을 A0로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시 재수강 학점 상한선을 A0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요즘 많은 대학에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의 경우,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이후 오히려 학생들의 만족도와 의사 면허 시험 합격률이 증가했다.

이밖에도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는 무조건 상대평가 제도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다. 당선된다면 학교 측과의 실무협의에서 최근 대학가의 추세 및 사례들을 토대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고자 한다.

인성교양과목 패스 논패스(P/N)제도 도입

Q: 인성교양과목 전체를 말하는 건가? 몇 개를 정한다고 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고 싶은가?

A: 자유 교양 중에서도 인성교육 범주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그 대상이다. 예시를 들자면 '부모연습'이라는 과목이 있다. 한 학우분이 "해당 과목에서 D+라는 점수를 받았는데 그럼 자신은 D+짜리 부모냐"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다. 사람의 인성을 단순히 일괄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 A~D등급으로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고 판단되며, 과목의 본래 취지를 비춰볼 때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인생설계와 진로' 과목도 이러한 이유로 15학번까지는 상대평가를 적용하다가 16학번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됐다. 종합정보시스템 카테고리상 '인성교육과목' 중 자유교양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추후 학교 측과 협의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권리 실현」

청춘공감 생활비 장학금 수혜인원 확대

Q: 장학 금액을 전체적으로 늘리겠다는 건가?

A: 청춘공감 생활비 장학금은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부담까지 짊어지는 우리 학우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2016년 1학기에 신설된 장학금 제도다. 도입 직후 생각보다 많은 학우들이 신청해주셨지만 금액이 한정돼 있었다.
올해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생활비 장학금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3억 5500만원으로 확충하게 됐다. 보다 더 많은 학우들이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수혜 인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의평가 기준 권리침해 항목 추가

Q: 이미 학우들 사이에서 교원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다. 권리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은 있는지 궁금하다.

A: 최근 대학가에서 교수의 각종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습들을 확인해왔다. 우리학교 역시 2018년 1학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J교수의 끔찍한 만행이 밝혀져 해당 교수가 파면당한 일도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체적인 대안들 중, 우선적으로 학기 말 강의평가에 〈권리침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학생으로서 쉬이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니만큼, 강의 진행 도중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항목 신설의 취지와 필요성을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아가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교원 분들에게도 확실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학우들 입장에서는 강의평가가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뒤 사후적 측면에 해당하기에, 학기 중 강의평가가 아닌 다른 경로로 문제점이 확인되는 경우(실제 잘못된 언행 혹은 권리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행위)에도 실질적인 제재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따라서 정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학생 대표자와 학교 측 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인 학내 성폭력, 인권 침해 대책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여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갈 생각이다.

「소통하다」

학생회 '투명 예산관리 태스크포스(이하 'TF')' 구성

Q: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다.

A: 학우들이 납부해주시는 소중한 학생회비로 이뤄지는 학생회 예산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학생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학우들로부터 학생자치기구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과대 및 학과 학생회, 다양한 자치기구들과 함께 예산 작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매뉴얼 작성법을 같이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지금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 발족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중감위가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중감위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컨대 타학교의 모범적인 중감위 사례, 즉 감사기준·방법·과정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연계해주거나, 안정적인 자치기구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안(피감사대상과 감사대상의 관계,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에 대해서도 중감위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재미」

삼국대전 개최

Q: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 진행해야 할 텐데 가능한가?

A: 두 질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다. 학우들의 재미를 보장하기 위해 타 학교와의 교류전인 〈삼국대전〉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타 학교와의 교류전은 이미 올해 '국상전'이라는 이름으로 상명대학교와 교류전을 진행한 적이 있고, 많은 학우 분들이 긍정적인 반응과 참여를 보여주셨다.

나아가 '솔루션'에서 기획하고 있는 삼국대전의 경우 현재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 제안한 상태다. 해당 학교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새로운 학생회가 선출되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선거운동본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당선이 된다면 신속하게 해당 학교와 실무적인 협의 등을 거쳐 2019년 내에 교류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더욱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 참여한 대학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예정이다.

「복지 UP UP!」

기숙사 운영 개선 (기숙사 점호 완화 및 통금 시간 폐지, 공용시설 위생, 방역문제 개선, 전자레인지 추가 배치)

Q: 통금 폐지나 통금 시간 연장이 되면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숙사 보안시스템이나 안전 대책이 있는가?

A: 그동안 대학가에서는 통금 시간 폐지에 대해 안전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금 시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우리학교 역시 이전보다 통금 시간이 점차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아가 통금 시간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통금 시간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학교에서 야간 작업이나, 야간 아르바이트 등 여러 이유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학생들이 통금 시간으로 인해 아예 기숙사를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 학생들의 안전에 더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통금 시간을 폐지하되, 기숙사 운영에 있어 중요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경비원분들의 정기적인 순찰도 해당될 것 같다.

최근 고려대학교에서는 일정기간 통금 시간 폐지를 시범적으로 진행했는데, 학생들 반응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우려했던 문제들도 발생하지 않아 통금 제도를 폐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학교 역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시범 운영을 거친 후, 개선점을 보완해 통금 시간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 입후보자로서의 각오와 다짐

민송길 정후보: '솔루션'은 함께 만드는 것이다. 단지 정후보, 부후보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저희 51대 총학생회 '솔루션' 선본에서 생각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더 나은 행동들을 할 수 있다. 준비된 경험과 실력을 계속해서 쌓아왔다. 그러한 경험과 실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더 새롭게 창출하는 솔루션이 되겠다. 남은 기간 더 많은 학우 분들을 만나면서 솔루션이 무엇인지 더 많이 말씀드리고 발로 뛰는, 말로만 이야기하기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솔루션이 되겠다.

임혜영 부후보: 2년 동안 총학생회를 하면서 학생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며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학생회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총학생회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언제나 학우들이었다.

우리 학우들과 손을 맞잡고 학생 중심의 총학생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총학생회실에서 학우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친구 같은 총학생회가 되어 먼저 찾아가 고민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학생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우리 학우들이 학교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